

특별한 사람(엡6:10-20)

하나님에게는 딱 한가지 소원이 있다. 다른 것 보다 이 한 가지가 중요하다. 그것이 사람을 저주에서 건지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이기도 하다. 언약을 잡은 자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 정말 눈이 열리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주에서 해방이라는 사실이 진짜 눈이 열리면 평생의 응답이 거기서 나온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소원이었으니까, 기도, 헌금 예배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에 만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비상대책을 세우신다. 하나님의 목표는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이다. 구원을 받은 자가 사명을 잊어 버리면 특별한 대책을 세우신다. 때로는 전쟁, 기근, 기타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신다. 포로로 잡혀가 노예로 가기도 한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세계사에 증명한 것처럼 요셉은 노예, 다니엘은 포로로, 세친구와 에스더도 그렇다. 바울은 감옥으로 가서 로마를 살렸고 중세시대에 루터를 통해서 독일 영국, 미국을 통해서 한때 중요한 세계복음화를 하셨다. 지금은 유럽교회가 힘을 잃었고 미국교회도 영적혼란을 겪고 있을 때, 작은 한국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남미는 황금어장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리로 오라고 손짓하시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일이 있을지 모르니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거 하나뿐이고 인생을 정복하는 응답을 받게 된다. 복음을 받고 누리고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있다면 굉장한 축복이고 인생의 응답이 거기서 다 나올 것이다. 금요일도 시간에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은철 목사가 몇가지 간증을 하셨다. 이흥남, 박점순 권사와 팀이 되어 양로 병원에 가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다. 제가 미국에서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양로 병원, 할리우드 쪽에 있는 양로 병원이다. 영어를 잘 못해서 복음을 옳게 못 전했다. 한국에서 준비한 복음편지를 전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 정류장이라서 귀신역사가 많았다. 60-70명되는 병원이다. 너무 오랫동안 귀신에 잡혀 있어서 얼굴과 눈이 빠졌어 진 사람들을 자주 만났다. 그런데 며칠전에 들어오거나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다. 한 6개월쯤 지나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과 같이 착착 바뀌어 간다. 돌아가실 때가 되면 눈도, 턱도, 얼굴도 빠졌어진다. 지금 이분들이 가고 있는 양로병원도 귀신역사가 상당할 것이다. 이은철목사나 이흥남 권사가 전도포럼을 보면 귀신들린 사람이야기가 나온다. 자기도 모르게 방해한다 예배 드리는 것을 저는 그때 영어가안되어서 정식으로 예배는 드리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조금 했다. 그런데 가서 지속만 하면 무조건 낫게 되어있다. 귀신들린 사람들이 이번주는 어떻게 하더라도 간증하더라. 마지막 정류장이다. 버스의 마지막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이고 교회 부흥의 눈으로 보면 의미 없지만 하나님은 다르다. 마지막 정류장 통과하기 전에 가서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말고는 중요한게 하나도 없다.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도 있다. 마지막 순간에 복음 전해서 살리

는 것이다. 지속을 하면 분명히 거기에 증거 일어 날것이다. 아주 틀림없는 사실이기에 지속적으로 들어가기를 바란다. 그러면 소문나게 되어있다. 저 양로 병원은 가면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난다고,, 양로병원에서 돈 만 벌려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고 싶은 원장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병원에 와서 해달라고 하겠지요 하나님의 계획따라 계속 번져 나가면 나중에 주지사 표창을 받겠지요 대통령표창을 받지 않을까요? 어렵습니까? 할 일 없어서 앉아 있는 자들에게 말만 해주면 무조건 역사 일어난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답을 가졌다. 특별하다.

1.특별한 사람

우리는 참으로 특별한 사람이다. 생각할수록 세월이 갈수록 참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가 어찌다가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았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놀랍다. 구원을 받았다 저주에서 나왔다 놀랍다. 구원은 아무나 받는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았다. 저주에서 해방되는 일은 인간스스로는 절대 안된다. 그게 우리에게 일어났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가 잊어버리지 말고 매일 확인하라. 살아있어야 한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해보라 과거를 생각해보면 많은 응답이 와 있을 것이다. 아무나 되는게 아니고 창조주 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을 하시니 놀라운 일이다. 사람을 저주에서 건지는 답을 가졌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네 인생의 답을 가졌다고 그 인생은 인생이 바뀌는 것이다.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한마디로 영적전쟁을 한다는 우리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가. 육신적이 우리가 영적전쟁을 하는 권세를 주셨다 네가 기도하면 뱀머리를 깨겠다고 네가 내 아들의 약속의 피를 내가 뱀의 머리를 네 대신 깨겠다고, 육신인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전쟁을 하겠는가 그런데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놀라운 일이다.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전쟁을 할것인가 못하면 사단에게 잡혀 영적문제 오고 인생문제와 사단에게 잡히는 것이다. 이 유와 관계없이 마음이 불안하다 하나님이 한 것인가? 조금 불안해 내가 했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사단이 한 것이다. 그래서 그 머리를 깨는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하는가? 정치가 권세자들은 특별히 사단의 역사가 심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무조건 이기는 답을 가졌다. 이미 이겨놓은 권세의 답을 가지고 있다. 언약이 딱 되어야 한다. 사실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눈에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인가? 이정도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너는 반석위에 세워진 내 교회라고 당연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고 약속하셨다.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약속하셨다. 하늘문을 열수 있는 것이다. 발견되면 역사 일어난다. 말씀 듣는 가운데 이해되면 그때부터 역사 일어난다. 너는 천국에 모든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열쇠를 주었다, 이미 와있다. 열면 닫을 자가 없는권세의 열쇠, 땅의 문도 무조건 열리는 것이다. 어떨때는 되고 안되는 때는 하나님께는 없다. 언약으로 잡으면 무조건이다. 고백을하면 약속대로 내 현상에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은 살았다, 히4:12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시편 119:105 주의 말씀은 내말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내 인생의 빛이다 말씀을 믿고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신다. 먼저 말씀을 해놓으시고 그대로 하신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신다. 오늘 우리가 특별한 사람인 것을 다시한번 확인을 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 약속의 피를 가진 특별한 사람이다. 세상은 나를 절대 이길 수 없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사단은 나를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게 한다. 이런 저런 문제에 잡혀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한다. 어려울수록 언약을 잡아야 하는데 속으면 문제에 묶인다. 마약하는 사람은 마약하는 하나님 자녀다. 어디에 중독이 되어있다면 중독된 하나님 자녀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는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도 나는 특별한 인간인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에 평안, 감사와 행복이 올 것이다. 무슨 뜻인가? 그게 맞다는 것이다. 네가 지금 바로 알고 있다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발견 하는 자는 승리하고 정복한다. 자신을 자기의 눈으로 보면 사단에 속임수를 넘어설수 없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시대적인 복음을 가진 특별한 사람인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낙심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라. 그들은 얼마나 낙심할만한 일이있었는가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니 언약으로 잡고 다시한번 승리하시라.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한주가 되기를 바란다.

2.기도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절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라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하였다.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금요일에 치유메시지가 나오는데 내가 먼저 치유되어야 한다. 그러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귀한 일이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감동적인 일이다. 내가 진실로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맙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19절 도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우리는 전도를 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하시고 말씀안에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때 그렇다. 말씀을 전하려면 말씀을 먼저 받아야 한다. 내 것으로 하는게 아니다.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라고 하였다. 복음의 비밀, 복음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비밀이다. 믿는 자는 저주에서 나오기에 복음안에 있는 비밀, 약속이다. 복음을 언약을 잡는 자는 저주에서 나온다 다시 되돌아 가는 법이 없다. 아무도 다시 끌고 가지 못한다. 나와버리고 끝나 버렸다. 언약으로 잡는 자는 실제 육신적인 삶도 저주에서 나온다. 살아있는 동안 느끼게 해주신다. 나는 저주에서 나왔어 육신적으로 나온 것을 체험하게 하신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이니 증인이 되어야

하다. 사람들은 육신에 저주에서 나오는것에 집중되어 있다. 그들에게 말하라 너 육신저주에서 나올수 있어 내 따라오면... 그게 증인이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주하는데 어떻게 증인 되는가? 복음 받은 자는 응답받고 증인되는 것이다. 복음안에 있는 중요한 비밀 또 하나 사단을 꺾을 수 있다. 절대로 복음 가진자를 이길 수없다. 우리가 저도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지금 졌을 뿐이지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이것이 사단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니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이다. 하늘보좌가 우리의 배경이니 이것을 가지고 기도한다. 기도 하기전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주에서 해방이라는 것이 진짜 발견이 된다면, 분명한 사실인데 이것이 진짜 발견이 된다면 잡을 것이다. 저주에서 나오고 싶고 승리, 정복하고 싶다면 딱잡고 기도하시라. 이 눈 열리는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절대 이 복음을 떠나지 않는다. 기도할 마음이 생길 것이다. 기도할 이유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굉장한 은혜를 받게 된다.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되면 은혜가 된다.대부분 그냥 기도한다. 이것도 은혜이다. 그러나 복음이 언약으로 발견되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왔다면 굉장한 은혜인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것으로 생각 될수도 있다. 아는 사람은 조그만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귀중한 출발이고 굉장한 은혜이다. 지속하면 이 언약잡은 기도를 지속하면 내 기도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보혈이야 뱀의 머리를 깬 약속의 피야 이것이 언약이 되고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약속의 피안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반드시 그리된다. 이 언약과 기도로 된 것이 전신갑주이다. 오늘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온 몸을 갑옷으로 싸겠냐? 그리스도의 보혈 이 언약과 그 언약을 누리는 기도이다. 언약이 있어야 하고 언약을 잡은 기도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를 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의 호심경 가슴을 막는 것 평안의 신의 복음의 권세를 누린다.이 신을 신고 현장에 가면 흑암이 무너진다. 언약을 딱 잡은자 약속의 피를 기도하는 자, 그러면 현장이 정복당한다. 이 사람은 믿음의 방패를 누릴 수 있다. 사단이 불화살을 쏜다. 그 언약과 기도로 막을 수 있다. 구원의 투구 누릴 수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 이 언약을 잡은 기도하는 자 성령의 말씀 나타난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시대적인 사람이니 너무나 감사하다. 다시 한번 전신갑주의 축복을 누리라. 이 놀라운 피 언약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가 이 언약을 다시 한번 누리고 특별한 사람인 것을 확인 하시라. 자신을 비하하면 안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실 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이다. 나를 용서하고 이해 하고 받아드리라 나를 축복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옆에 분에게 이야기 하라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 시대를 살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한주간 이 놀라운 언약으로 승리하기를 바란다.